

삼전, 금리 1.5% 대출 푼다… 동탄·기흥 등 주택시장 ‘들썩’

무주택 임직원 대상 주거안정 지원
매매 최대 5억, 임차자금 3억 대출
시중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4.48%
5억 빌리면 연 1490만원 아끼는셈
“8억~9억 매물 위주 거래 분위기”

반도체 훈풍을 타고 가파르게 오르는
규제지역 지정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간
동탄·기흥 등 경기 남부 주택시장이 다
시 들썩이고 있다. 삼성전자가 지난 1일
부터 무주택 임직원에게 연 1.5%로 최
대 5억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면서 이른
바 ‘반도체 벨트’ 매수세를 재점화할 지
주목된다.

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9월부터
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
제도(사내 주택자금 대출)를 시행한다.
본인과 배우자가 주택·분양권·입주권·오
피스텔을 보유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매매
자금은 최대 5억원, 임차자금은 최대 3억
원까지 연 1.5%로 지원한다. 매매 대상은



삼성전자가 9월부터 사내 주택자금 대출을 시행하면서 경기 남부지역 집값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. 화성시 동탄역 일대. /성채리 기자

25억원 이하 주택이며 수도권과 광역시는
전용면적 85㎡ 이하로 제한된다. 제도는
2035년까지 운영한다.

시중은행 대출과 비교하면 이자 절감
효과가 상당하다. 지난 7월 예금은행의 신

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
연 4.48%였다. 이와 비교하면 5억원을 빌
릴 때 단순 계산으로 연간 약 1490만원을
아낄 수 있다. 금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
비율(DSR) 부담으로 주택 구입을 미뤘던

임직원의 매수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
분석이다.

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사업장과 셔틀버
스로 접근하기 쉬운 화성 동탄과 수원 영
통, 용인 기흥·수지 등의 중소형 아파트가
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고 있다.
특히 대출 한도가 매매가격의 절반 이상
을 차지하는 8억~9억원대 주택에 수요가
집중될 가능성이 제기된다.

동탄역 인근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
자는 “역세권 아파트는 가격대가 높아 아
직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”며 “같은 동탄에
서도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8억~9억원
대 매물 위주로 거래가 늘어나는 분위기
다”라고 말했다. 동탄 내 외곽 지역으로
쫓히는 목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
는 “9월이 되면 사내대출을 이용해 집을
살 계획이라는 임직원들의 문의와 방문이
늘었다”고 전했다.

이런 가운데 경기 남부 아파트값도 상
승폭을 키우고 있다.

한국부동산원의 8월 넷째 주 주간 아파

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화성 동탄구의 상
승률은 전주 0.12%에서 0.54%로 확대됐
다. 수원 영통구는 0.30%에서 0.75%, 용
인 수지구는 0.30%에서 0.66%, 기흥구는
0.33%에서 0.63%로 상승폭이 커졌다.

SK하이닉스도 최근 사내 주택대출 문
턱을 낮췄다. 연 1.5%, 최대 2억원인 사내
주택대출 대상을 다자녀 직원에서 기혼
직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. 반도체 대
기업의 주거 지원이 임직원의 실질적인
주택 구매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확대되는
모습이다.

일각에선 주요 대기업의 저금리 사내대
출이 주택 구매력과 자산 격차를 키울 수
있다는 우려도 있다. 대기업 임직원은 시
중보다 낮은 금리와 DSR 규제 예외로 매
수 여력을 높일 수 있어서다. 반면 중소기업
근로자는 같은 무주택자라도 상대적으로
높은 금리와 금융 규제를
그대로 적용받는다.

/성채리 기자

cr56@metroseoul.co.kr



“추석 기차표 10% 할인… 비용부담 덜어요”

카드사별 교통비 할인 꿀팁

신한카드, 뽁·에코플랜 KTX 10% ↓
삼성카드, 한화이글스 등 5% 할인
KB국민, 2만원 결제시 5000원 혜택

추석 귀성길 열차 예매를 앞두고 KTX
와 SRT 등 고속열차 이용 시 할인 혜택
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 주목받고 있다.
명절을 맞아 교통비 지출이 늘어나는 만
큼 보유한 카드의 할인 조건과 한도를 미
리 살펴보면 귀성길 비용 부담을 덜 수
있다.

2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추석
명절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다. 3~4일은
교통약자 사전예매가, 7~11일에는 모든
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예매가 진행되
다.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운하
는 열차를 대상으로 한다.

이번 추석 귀성길에 열차 관련 혜택을
누리고 싶다면 적립보다는 할인에 집중
하는 것이 좋다. 추석 KTX 승차권은 K

TX 마일리지 적립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
문이다.

대표적으로 ‘신한카드 뽁(B.Big)’ 카드
가 주목할 만 하다. 신한카드 뽁 카드는 K
TX 10%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. ‘신한카
드 에코(ECO) 플랜(Plan)’ 카드는 KTX
·SRT 이용 고객 모두에게 10% 할인 혜택
을 지급한다.

삼성카드 고객은 ‘한화이글스 삼성카
드’, ‘삼성라이온즈카드’ 등을 통해 KT
X, SRT 5%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.
‘삼성카드 taptap I’ 여가 패키지를 선택
하면 KTX, SRT 포함 건별 3만원 이상
결제 시 5000원 청구할인 혜택을 받을
수 있다.

KB국민카드의 경우 ‘트래블러스 체크
카드’ 전월 실적 20만원 이상 고객에게 K
TX 2만원 결제 시 5000원 할인을 제공한
다. 고속시외버스 업종 2000원 할인 혜택
도 누릴 수 있다.

만 65세 이상 고객이라면 ‘국민연금

증 우리카드’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
법이다. 국민연금증 우리카드는 카드
이용자 본인 한정 철도 요금 30~50%를
할인해 준다. KTX, 새마을호는 30%,
무궁화호는 30% 할인받을 수 있다. 단,
현장 열차 승차권 구매 시 신분증 제시
는 필수다.

현대카드 ‘현대카드ZERO 에디션3’도
KTX 할인 카드로 활용하기 좋다. KTX
승차권 예매 시 기본 0.8% 청구 할인 혜택
을 제공한다. ‘현대카드 X’ 카드는 1% 청
구 할인 혜택을 지급한다.

한편, 예매 후 승차권 결제는 이달 12일
0시부터다. 일반 예매 승차권은 15일까
지, 교통약자 사전예매 승차권은 18일까
지 결제를 마쳐야 한다. 결제되지 않은 표
는 자동 취소되며, 취소된 표는 예약 대기
신청자에게 순서대로 넘어간다.

2026년 추석 KTX 기차표 1회당 6매 이
내, 1인당 최대 12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.

/안재선 기자 wotjs4187@

임종룡 우리금융 회장, 자사주 5000주 매수

1억5925억 규모 ‘책임경영’ 실천
16개 전 자회사 임원 등 56명 참여

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및 우리금융
그룹 경영진들이 자사주 매입을 통한 책
임경영 실천에 나섰다.

우리금융그룹은 지난달 24일 임종룡 회
장이 우리금융지주 주식 5000주를 장내
매수했다고 2일 밝혔다. 지난달 24일 종가
기준으로 1억5925만원 규모다. 이번 자사
주 매입은 약 4개월간의 동양생명·완전자
회사 절차를 마무리하고, 동양생명·ABL
생명 통합 추진을 공식화한 시점에 진행
됐다.

우리금융그룹은 이번 매입이 임종룡 회
장의 ‘은행·비은행 성장모멘텀 확보’에 기
반한 기업가치 제고 의지를 시장에 전달
하고자 추진됐다고 설명한다. 이번 자사
주 매입에는 임 회장 뿐 아니라 16개 전
(全) 자회사 대표, 지주사·은행 및 주요 자
회사 임원 등 그룹 경영진 가운데 총 56명
이 참여했다.



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.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본점에 위치했다. /우리금융

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“임종룡 회장을
비롯한 그룹 경영진이 함께 자사주 매입에
나선 것은 책임경영 실천 및 주가부양에 대
한 확고한 의지 표현이다”라며 “성장 모멘
텀 확보를 바탕으로 시장과의 약속인 밸류
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자평가를 해소하
고,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에 부응해 나가
겠다”고 말했다.

/안승진 기자 asj1231@

외국인 국내 카드결제 49억 달러 ‘사상 최대’

한은, 2분기 카드 해외 사용실적
거주자 해외카드 사용액 4.2% 감소

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쓴
카드 금액이 2분기 48억6000만달러로
사상 최대를 기록했다. 반면 국내 거주
자의 해외 카드 사용액은 4.2% 줄면서
양측의 격차가 10억달러 아래로 좁혀
졌다.

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‘2026년 2분기
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’에 따르면
비거주자의 국내 카드 사용액은 48억6200
만달러로 전분기보다 36.1% 급증했다. 종
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2분기 37억9300만
달러보다도 28.2% 많다.

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수는
2502만장으로 전분기보다 34.3% 늘었다.
카드 한 장당 사용액도 192달러에서 194

달러로 증가했다.

거주자의 해외 카드 사용액은 58억
4800만달러로 전분기보다 4.2% 감소했
다. 전년 동기보다는 5.9% 늘었지만 비거
주자의 국내 사용액과의 격차는 9억8600
만달러로 축소됐다.

온라인쇼핑 해외 직접구매액은 13억
5000만달러에서 14억1000만달러로 4.3%
증가했다. 그러나 내국인 출국자 수가
833만1000명에서 663만1000명으로
20.4% 줄면서 여행 관련 카드 지출이 위
축됐다.

해외에서 사용된 카드 수는 1815만
9000장으로 3.3% 줄었고, 카드 한 장당 사
용액도 322달러로 0.9% 감소했다. 카드 종
류별 사용액은 신용카드가 40억7500만달러
로 0.6%, 체크카드가 17억7300만달러로
11.5% 각각 줄었다. /김주형 기자 gh471@

KB국민은행 中企·소상공인 지원 추석자금 15조 공급

KB국민은행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
시적인 자금 수요 증가로 경영에 어려움
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
원한다고 2일 밝혔다.

KB국민은행은 이번 지원으로 총 15조
2000억원 규모(신규 6조 2000억원, 만기
연장 9조원)의 자금을 공급한다.

대출 가능 금액은 업체당 소요 자금 범
위 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가능하다. 기
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주
기 위해 대출 만기 시 원금 일부 상환조건
없이 만기연장을 허용하고, 분할상환금
납입 유예 등 금융지원도 병행한다. 아울
러 대출 신규 및 만기연장 시 최대 1.5%
포인트(p)의 금리우대도 제공한다.

/안상미 기자 smahn1@

KB국민카드 ‘상권 활성화’ 이벤트 마련

국토부 ‘K-패스’ 최대 2만원 캐시백
햇살론·그린카드 캐시백 혜택 다채

KB국민카드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금
융 접근성 제고, 친환경 소비 확산 등 사
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고객 참여 이벤트를
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.

먼저, 이달까지 국토교통부의 K-패스
와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을 연계한 고객
혜택을 제공한다. K-패스카드 신용·체크
카드로 온누리상품권, 착한가격업소가맹
점에서 1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에게 추
첨을 통해 K-패스 환급액의 절반을 최대
2만원까지 캐시백해 준다.

내달까지는 햇살론카드 이용 이벤트
도 진행한다. 햇살론카드, 소상공인 특례
햇살론 신용카드로 40만원 이상 이용한
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만원 캐

시백을 제공한다. 취약 차주에게 실질적
인 카드 이용 혜택을 제공해 금융 접근성
을 높이고 포용금융의 가치를 실현한다
는 취지다.

오는 11월 30일까지 친환경 소비문
화 확산을 위한 그린카드 이벤트도 실
시한다. 그린카드 신용·체크카드로 자
연휴양림·수목원 등 산림복지서비스
관련 시설을 이용한 고객에게 추첨을
통해 최대 100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지
급한다.

KB국민카드 관계자는 “고객의 일상적
인 카드 이용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포용
금융, 친환경 소비 등 사회적 가치로 이어
질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”며
“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사업과 연계해 고
객 혜택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높여 나갈
것”이라고 말했다.

/안재선 기자